

# 경영컨설팅서비스특성이 중소기업의 흡수역량과 혁신의지를 통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박준현<sup>1</sup>, 서영욱<sup>2\*</sup>

<sup>1</sup>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박사과정, <sup>2</sup>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교수

## The Effect of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 Characteristics on Business Performance through Absorption Capacity and Innovation Willingness of SMEs

Jun-Hyun Park<sup>1</sup>, Young-Wook Seo<sup>2\*</sup>

<sup>1</sup>Ph. D. Course, Department of Management Consulting, Daejeon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Management Consulting, Daejeon University

요약 무한 경쟁 시대의 중소기업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의 자체역량의 부족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컨설팅의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서비스품질의 전문성과 컨설턴트의 지식과 태도를 컨설팅서비스특성이라고 정의하고 흡수역량과 혁신의지를 바탕으로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영컨설팅 수진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총 131부의 설문답변지를 SPSS 22.0과 SmartPLS(3.3.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컨설팅서비스특성 중 전문성과 컨설턴트의 지식은 수진기업의 흡수역량과 혁신의지를 활용하여 경영성과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다만, 컨설턴트의 태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로써 컨설팅서비스특성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하였고, 컨설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컨설팅기업과 수진기업이 갖추어야 할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컨설팅의 다양한 속성과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심리적 변수를 고려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서비스특성, 흡수역량, 혁신의지, 경영성과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consulting service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performance based on absorption capacity and innovative willingness in order to find out the factors of effective consulting In an age of infinite competition. 131 questionnaires were used to test 8 hypotheses using SPSS 22.0 and SmartPLS(3.3.2). Results are as follows: expertise and consultant knowledge among consulting service characteristics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the company's absorption capacity and innovative willingness. However, the consultant's attitude had no significant effect.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ary of factors that can enhance the consulting effectiveness. We would like to consider and analyze the psychological variables that can enhance the various attributes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consulting in future research.

Key Words :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nsulting Service Characteristics, Absorption Capacity, Innovative Willingness, Business Performance

\*Corresponding Author : Young-Wook Seo(ywseo@dju.ac.kr)

Received September 9,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Revised October 15,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 1. 서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출현하며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이 결합하고 분리되는 융복합 시대인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우리를 둘러쌀 것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예외 없이 들어 닥칠 것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는 2017년 기준으로 3,605천개(99.9%)이며, 종사자 수는 14,4852천명(81.8%)이다 [1].

우리나라 총 기업수의 절대부분(99.9%)을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과 역량이 낮은 이유는 대기업에 비하여 내부의 조직 역량이나 정보수집능력, 투자능력 등 많은 역량들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자 하는 능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무한경쟁과 변화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지속가능경영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은 자신의 경쟁력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은 필연적이다. 코로나19와 같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회사의 역량을 키워내기 위하여 회사 자체의 노력으로는 경쟁력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컨설팅기관의 경영 컨설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내부역량과 새로운 외부의 지식과 역량이 서로 융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컨설팅 효과는 기업내부에 체화되어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컨설팅산업에 속한 기업들도 불확실성하의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성장모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컨설팅기업들은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컨설팅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주제로 많은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도출된 다양한 컨설팅 기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에 적용한다면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컨설턴트의 역량과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경영컨설팅의 주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2].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경영컨설턴트의 역량은 수진기업의 수용성을 통하여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

었다고 하였다[3]. 채주석과 박상석 (2019)의 연구에서 중소·중견기업 CEO의 전략적 리더십은 기술혁신의지에 영향을 주었고 기술혁신의지는 혁신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4]. 따라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적 물적 자원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차원의 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에 기술혁신의지를 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으로써 가정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혁신의지와 경영성과에 관한 영향 연구는 일부 연구만이 이루어져 왔고 아직도 혁신의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5]. 기업의 흡수역량이 높아질수록 정성적, 정량적 경영성과는 높아진다[6]. 선행연구에서는 컨설턴트와 서비스품질, 컨설팅성과 등을 다루어 왔다. 그러나 컨설팅을 받아들이고 이를 내재화하여 역량으로 활용해야 할 중소기업의 흡수역량과 혁신의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수행한 선행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컨설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변수로 흡수역량과 혁신의지를 기업의 특성으로 고려하고 컨설턴트의 역량 중 지식과 태도를, 서비스품질의 요인 중 전문성을 경영컨설팅서비스특성으로 정리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가지 요인 중 서비스품질과 컨설턴트의 역량을 경영컨설팅서비스특성으로 정의하고 수진기업의 흡수역량과 혁신의지 그리고 경영성과의 종합적 관계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수진기업의 흡수역량이 컨설팅서비스특성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수진기업의 혁신의지가 경영컨설팅서비스특성과 경영성과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업의 흡수역량과 혁신의지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로써 학문적 의의를 가지며, 컨설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요인으로써 흡수역량과 혁신의지의 역할을 컨설팅을 추진한 기업의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하여 실무적연구로서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중소기업경영컨설팅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7].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경영과는 달리 소유와 경영의 미 분리 현상이 특징이다. 경영자의 형태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보다는 창업주이면서 동시에 소유경영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8].

경영컨설팅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제컨설턴트협회(ICMCI)는 “경영책임자에게 경영의 전반에 ‘독립된 자문(advice)과 조력자역할(assistance)’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였다. 경영컨설팅은 고용되거나 독립형태의 컨설턴트가 의뢰인의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하였다[9]. 또한 사업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여 경험과 학습의 기회를 얻고 변화를 통하여 조직의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독립적 자문서비스라고 하였다[10].

경영컨설팅의 특성으로 첫째, 전문성, 둘째, 사업성 그리고, 고객지향성이 있다고 하였다[11]. 전문성은 컨설팅의 핵심역량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며 컨설팅 결과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부여한다.

사업성은 컨설팅은 영리분야임을 나타낸다. 컨설팅산업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영리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컨설팅서비스는 전문적 상품이다. 이에 컨설팅 의뢰자는 제공받은 컨설팅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고객지향성은 고객 중심적 서비스임을 말한다. 즉,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윤리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 2.2 경영컨설팅서비스특성

경영컨설팅서비스특성의 세부 요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전문 경영컨설턴트 20명에게 “컨설팅서비스품질의 전문성, 신뢰성, 공감성, 유형성” 과 “컨설턴트의 지식, 능력, 태도” 변수에 관하여 중요순위를 조사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품질의 전문성, 컨설턴트의 지식과 태도를 경영컨설팅서비스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서비스품질이란 형태가 없는 가치를 제공하고 산출결과는 제품처럼 형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실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12]. 서비스품질은 제공받는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를 말하며 이는 개인적 요청사항과 과거의 경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약속, 그리고 주변의 구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3]. 이후 추가 연구에서 서비스품질 중요요인을 공감성, 신뢰성, 대응성, 유형성, 확신성으로 축소하였다[14].

역량은 환경과 매우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수행 할 수 있는 학습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생성되는 특성이라고 하였다[15]. 컨설팅을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역량으로 경영진단과 문제분석능력, 해결전략 수립 능력, 프로젝트 역량 외에 현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계획된 일정을 운영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16].

## 2.3 기업의 흡수역량

흡수역량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자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지식능력을 개인수준에서 조직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17]. 또한 흡수역량은 외생 지식정보를 평가하고 기업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찾아 인식하는 것, 외부지식을 내재화하는 것, 습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이나 제품 개선에 또는, 신제품개발 등에 사용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18]. 기존의 흡수역량에 조직 지식, 정형화능력, 사회적 통합메커니즘을 통합시키면 조직의 흡수역량은 강화된다[19]. 조직지식은 현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스킬을 말한다. 그리고 정형화능력은 조직의 업무방식이나 절차를 구체화하는 개념으로 회사 내규나 규칙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합메커니즘은 조직 내에 정보교환이나 지식의 교류에 있어 막힘이 없도록 규제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컨설턴트의 지식과 태도는 기업의 조직역량과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다[25].

## 2.4 기업의 혁신의지

혁신은 2개 이상의 개념을 결합하여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 과정이다[20]. 또한, 혁신역량은 기업의 사업절차와 과정, 시스템, 그리고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업역량으로써 제품과 프로세스의 혁신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21]. 이에 최고경영자의 혁신의지는 선결조건이다[22]. 혁신역량은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이루기 위해 필수 요건이며 혁신역량으로 저렴한 가격, 생산 속도, 품질의 향상, 그리고 신기술을 가지고 시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23]. 기술혁신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력을 유지시켜주는 기업의 필수적 요소이다[24].

### 2.5 경영성과

수진기업의 크기와 컨설팅수진여부, 조직원의 역량, 시대의 상황변화와 경제적 상황변화 등에 따라 경영성과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26], 경영성과는 생산성, 품질성과, 원가절감성과, 재무성과, 혁신성과의 요인으로 분류된다[27]. 경영성과는 지식경영의 결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고 개인업무, 조직업무, 그리고 조직간 업무의 효과성으로 구분된다[28]. 그리고 후속연구에서 경영성과는 종업원의 1인당 매출액과, 부가가치 그리고 품질로 정의하였다[29]. 경영성과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른 핵심요건에 맞추어 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며 기업의 비재무적 재무적 성과지표로 BSC를 정의하였다[30].

## 3.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Fig.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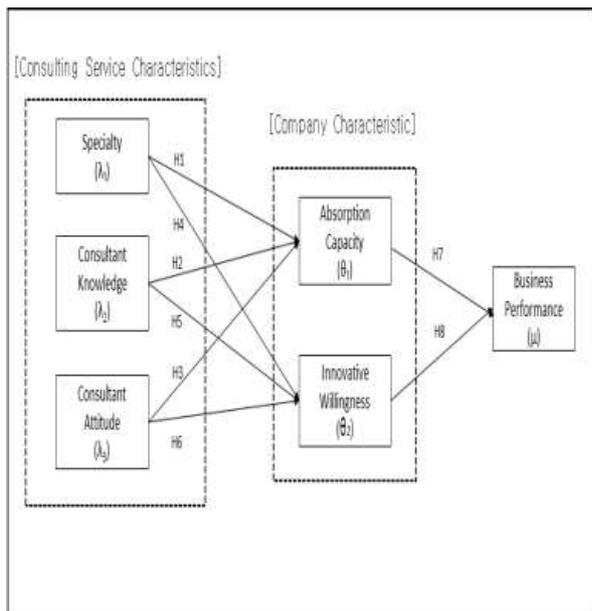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3.2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경영컨설팅서비스특성이 수진기업 흡수역량과 혁신의지의 통하여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을 수

진함으로써 이를 내재화 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성과를 증가시키고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선정된 컨설팅서비스특성, 흡수역량, 혁신의지, 그리고 경영성과의 요인을 분석을 하고자 한다.

#### 3.2.1 경영컨설팅서비스특성과 수진기업의 흡수역량의 관계

선행연구에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기업의 흡수역량은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1]. 그리고 흡수역량은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 그리고 성과에 영향을 주었다[32]. 탐색역량과 활용역량이 흡수역량으로써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었다[33]. 흡수역량과 경영컨설팅 서비스특성의 영향관계와 관련하여 컨설팅서비스의 지식해석과 통합이 조직의 흡수역량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6].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서비스품질은 기업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컨설턴트역량은 수진기업의 컨설팅의 만족도와 경영컨설팅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37].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통하여 당 연구에서 경영컨설팅서비스특성이 기업의 핵심역량인 흡수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도출하였다.

H1: 컨설팅서비스품질의 전문성은 기업의 흡수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2: 컨설턴트의 지식은 기업의 흡수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3: 컨설턴트의 태도는 기업의 흡수역량에 긍정적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 3.2.2 경영컨설팅서비스특성과 수진기업의 혁신의지와의 관계

기업의 혁신적 의도와 인프라가 기업의 혁신영향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 높인다고 하였다[35]. 이상봉과 이철규(2019)의 연구에서 컨설턴트 및 고객특성은 조직혁신지향성의 조절효과를 바탕으로 컨설팅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38]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 컨설팅서비스특성이 기업의 혁신의지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소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도출하였다.

H4: 컨설팅서비스품질의 전문성은 기업의 혁신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5: 컨설턴트의 지식은 기업의 혁신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6: 컨설턴트의 태도는 기업의 혁신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3.2.3 수진기업의 역량과 경영성과와의 관계

정의성과 정규석(2018)의 연구에서도 기업의 흡수역량은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39]. 흡수역량이 기업의 수익성과 매출액에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34]. 혁신은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혀냈고[40-42], 기업의 혁신의지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43-46].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특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연구 가설을 도출하였다.

H7: 기업의 흡수역량은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8: 기업의 혁신의지는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3.3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경영컨설팅서비스특성이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 기업의 흡수역량과 혁신의지가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경영컨설팅을 경험한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에 관련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42부를 회수하였다.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와 컨설팅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131건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 3.4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경영컨설팅서비스특성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 경영컨설팅서비스특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기업의 흡수역량과 혁신의지를 매개로, 그리고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두었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변수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컨설팅서비스의 전문성은 컨설팅 서비스 제공 시에 전문적 지식 방법론을 사용하여 컨설팅 결과물을 정해진 시간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14]. 박병호 등(2005); 송거영 등(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기반으로 컨설팅서비스 품질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설문을 6문항으로 구성,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47, 48].

컨설턴트의 지식은 경영 전반의 이해력과 수진기업의 문제점 도출과 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신동주와 유연우(2012); 김종광과 석기준(2012)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컨설턴트의 지식에 관하여 6문항으로 구성,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49-50].

컨설턴트의 태도는 컨설팅 목표달성에 대한 자신감, 커뮤니케이션 능력, 확고한 직업윤리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6]. 이를 기반으로 신동주와 유연우(2012); Allen and Davis(1993) 등의 연구에서 측정된 컨설턴트의 태도에 관한 설문을 근거로 6문항으로 하여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49, 51].

흡수역량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새로운 외부 지식의 내재화를 통해 새로운 역량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조직의 학습의지로 정의한다[46]. 이를 근거로, Cohen and Levinthal(1990); 구철모와 최정일(2008); 조근식과 구철모(2008)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토대로 기업의 흡수역량에 관한 질문을 6문항으로,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8, 53, 54].

혁신의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부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시스템 그리고 변화의지로 정의한다[21, 23]. 이를 근거로 기업의 혁신의지와 관련한 설문을 6문항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경영성과는 기업의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의사결정의 향상[55]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과, 직원들의 만족도와 혁신의지를 제고하는 것으로 정의한다[9]. 이를 기반으로 경영성과에 관하여 7문항 구성으로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4. 분석결과

### 4.1 표본의 특성

경영컨설팅을 수진한 중소기업의 참여했던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 131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결과는 Table2에 정리하였다.

### 4.2 신뢰성 및 타당도 분석

Table 3에서 내적일관성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7이상으로 측정되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집중타당도는 첫째, 요인 적재치는 0.5이상, 둘째, 평균분산추출(AVE)값은 0.5이상, 그리고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이하 C.R) 값은 0.7이상 충족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Constructs		items	Character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Related studies
Consulting service characteristics	Speciality ( λ1 )	SPC1 SPC2 SPC3 SPC4	Use of appropriate techniques and methodologies for requirements Ability to actively respond to findings Optimal outcome elicitation status Actively and responsibly dealt with the protruding points in the consulting process.	[47,48]
	Consultant Knowledge ( λ2 )	KWG1 KWG2 KWG3 KWG4	The general knowledge of the consultant's management Expertise in diagnosing corporate problems and identifying problems Whether to have the ability to analyze diagnostic problems Consultant's ability to conduct consulting is retained	[49,50]
	Consultant Attitude ( λ3 )	ATE1 ATE2 ATE3 ATE4	Whether the consultant is sincere in consulting on customer requirements The scope of consulting work and compliance with objectives. Consultant's confidentiality compliance status of the client company Whether the consultant's consulting results are false or exaggerated.	[49,51]
Company Characteristics	Absorption Capacity ( θ1 )	APCY1 APCY2 APCY3 APCY4	Ability to acquire new skills or knowledge Better expertise than competitors Sensitive to changes and active response status Whether to have a compensation system for voluntary and creative ideas	[18,53,54]
	Innovative willingness ( θ2 )	INWS1 INWS2 INWE3 INWE4	Whether a TF is organized for consulting execution Whether the CEO has interest in consulting and willpower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consulting for innovation within the company Understanding consulting results	[21,23]
Business Performance	Business Performance ( μ )	BUPE1 BUPE2 BUPE3 PUPE4 BUPE5	Increase in sales and net profit as a result of consulting progress Improved anti-monetary flow as a result of consulting progress Whether to improve the work process and to change and improve their skills Decrease decision-making steps and reduce time Increased willingness and activities of employees to innovate	[9,55]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a survey sample.

Categories	Range	Frequencies	Ratio (%)	Categories	Range	Frequencies	Ratio (%)
Gender	Male	95	72.5	Employees	Below 5	43	32.8
	Female	36	27.5		Between 5 and 10	41	31.3
			Between 10 and 20		20	15.3	
			Between 20 and 50		7	5.3	
			Between 50 and 100		4	3.1	
			Over 100		16	12.2	
Business Field	Mechanic / Materials	18	13.7		Location	Seoul	63
	ICT	17	13.0	Gyeonggi-do		25	19.1
	Bio / Health care	11	8.4	Chungcheong-do		20	15.3
	Electric Electronics	5	3.8	Jeolla-do		8	6.1
	Chemistry	6	4.6	Gyeongsang-do		14	10.7
	Energy resources	0	0.0	Gangwon-do		1	0.8
	Knowledge Service	62	47.3	Jeju		0	0
	etc.	12	9.2				

해야 집중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요인 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은 0.5이상, 평균분산추출(AVE)값은 0.5이상, 개념신뢰도(C.R)가 모두 0.8이상으로 측정되어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판별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각 요인들의 비대각 영역의 상관계수 값보다 AVE의 제곱근 값이 더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4.3 가설검증결과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분석하기 위하여 SmartPLS(3.3.2)

툴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가설H1의 컨설팅서비스품질의 전문성과 흡수역량의 관계에서 경로계수는 0.231, T=2.139, 유의수준은 p<0.05로 나타나 두 요인은 긍정적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가설H2의 지식과 흡수역량에서 경로계수는 0.302, T=2.264, 유의수준은 p<0.05로 두 요인은 긍정적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가설H3의 태도와 흡수역량은 경로계수값 0.033, T=0.234, 유의수준은 p>0.05로 컨설턴트의 태도와 기업의 흡수역량과의 H3의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H4의 전문성과 혁신의지는 경로계수는 0.178, p<0.05로 두 요인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for latent variables.

Latent variables	Items	Factor loadings	Cronbach's Alpha	Construct Reliability	AVE
Speciality ( $\lambda_1$ )	SPC1	.709	.793	.862	.688
	SPC2	.804			
	SPC3	.808			
	SPC4	.798			
Consultant Knowledge ( $\lambda_2$ )	KWG1	.867	.878	.915	.730
	KWG2	.855			
	KWG3	.795			
	KWG4	.898			
Consultant Attitude ( $\lambda_3$ )	ATE1	.879	.863	.904	.703
	ATE2	.827			
	ATE3	.864			
	ATE4	.781			
Absorption Capacity ( $\theta_1$ )	APCY1	.798	.909	.932	.733
	APCY2	.828			
	APCY3	.886			
	APCY4	.895			
	APCY5	.870			
Innovative willingness ( $\theta_2$ )	INWS1	.783	.776	.871	.692
	INWS2	.834			
	INWE3	.876			
Business Performance ( $\mu$ )	BUPE1	.824	.887	.917	.688
	BUPE2	.757			
	BUPE3	.841			
	PUPE4	.858			
	BUPE5	.863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test.<sup>a</sup>

	$\lambda_1$	$\lambda_2$	$\lambda_3$	$\theta_1$	$\theta_2$	$\mu$
Speciality ( $\lambda_1$ )	0.781					
Consultant Knowledge ( $\lambda_2$ )	0.488	0.855				
Consultant Attitude ( $\lambda_3$ )	0.462	0.687	0.839			
Absorption Capacity ( $\theta_1$ )	0.382	0.429	0.348	0.856		
Innovative willingness ( $\theta_2$ )	0.369	0.462*	0.412	0.601	0.832	
Business Performance ( $\mu$ )	0.451	0.510	0.474	0.620	0.554	0.830

a : Values in the diagonal are coefficients of the square root of AVE.

Table 5.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sup>a</sup>

Hypotheses	Path coefficient	T- values	Test result
<b>H1</b> : Speciality ( $\lambda_1$ ) → Absorption Capacity ( $\theta_1$ )	0.231	2.139*	Supported
<b>H2</b> : Consultant Knowledge ( $\lambda_2$ ) → Absorption Capacity ( $\theta_1$ )	0.302	2.264*	Supported
<b>H3</b> : Consultant Attitude ( $\lambda_3$ ) → Absorption Capacity ( $\theta_1$ )	0.033	0.234	Rejected
<b>H4</b> : Speciality ( $\lambda_1$ ) → Innovative willingness ( $\theta_2$ )	0.178	2.342*	Supported
<b>H5</b> : Consultant Knowledge ( $\lambda_2$ ) → Innovative willingness ( $\theta_2$ )	0.295	2.285*	Supported
<b>H6</b> : Consultant Attitude ( $\lambda_3$ ) → Innovative willingness ( $\theta_2$ )	0.127	0.987	Rejected
<b>H7</b> : Absorption Capacity ( $\theta_1$ ) → Business Performance ( $\mu$ )	0.449	6.007***	Supported
<b>H8</b> : Innovative willingness ( $\theta_2$ ) → Business Performance ( $\mu$ )	0.283	3.104**	Supported
Absorption Capacity ( $\theta_1$ )	R <sup>2</sup> =0.229		
Innovative willingness ( $\theta_2$ )	R <sup>2</sup> =0.255		
Business Performance ( $\mu$ )	R <sup>2</sup> =0.435		

a: Parentheses are standard deviation, and One-tailed test

\*p < 0.05. \*\*p < 0.01. \*\*\*p < 0.001.

검증되었다. 가설H5에서 컨설턴트의 지식과 혁신의지는 경로계수는 0.295,  $p < 0.05$ 로 두 요인은 긍정적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반면, 가설H6의 태도와 혁신의지의 경로계수는 0.127,  $T=0.987$ , 유의수준은  $p > 0.05$ 로 가설H6은 기각되었다. 가설H7의 흡수역량과 경영성과는 경로계수는 0.449,  $T=6.007$ , 유의의수준은  $p < 0.001$ 로 긍정적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가설H8의 혁신의지와 경영성과는 경로계수는 0.283,  $T=3.104$ , 유의수준은  $p < 0.01$ 로 긍정적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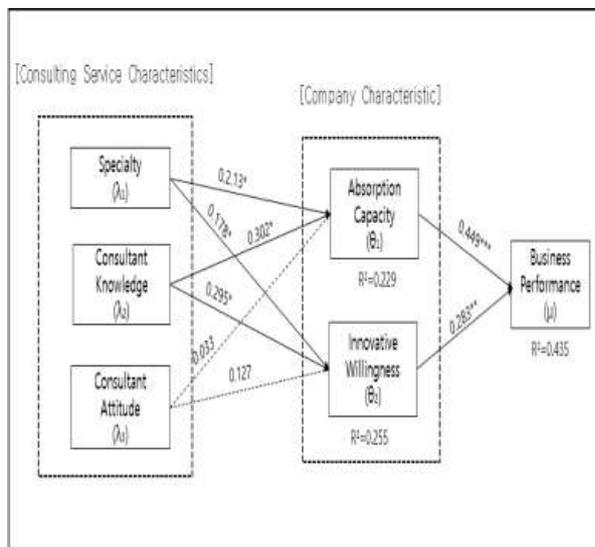


Fig. 2.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 5. 결론

본 연구는 컨설팅서비스특성을 정의하고 기업의 흡수역량과 혁신의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경영성과와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컨설팅서비스특성은 기업의 흡수역량과 혁신의지를 통하여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컨설턴트의 태도는 흡수역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컨설턴트의 태도와 관련한 불만사항이 많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에 컨설턴트의 태도에 대한 많은 교육이나 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은 학문적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컨설턴트의 역량과 전문성이라는 서비스 품질을 경영컨설팅서비스특성으로 묶어 혁신의지와 흡수역량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를 통해 경영성과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연구로써 컨설팅수

행과 관련하여 컨설팅성과를 높이는 중요변수에 대한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경영컨설팅서비스특성과 기업의 흡수역량과 혁신의지, 그리고 경영성과에 이르는 영향관계를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영컨설팅을 수행 시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컨설팅 서비스 품질과 컨설턴트의 역량 부분만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진기업의 흡수역량과 혁신의지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핵심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하였기에 실무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하고자 물적, 인적자원 향상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당해 문제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컨설팅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영컨설팅 수진으로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기에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경영전반에 활용하여 수용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수진기업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컨설팅결과를 얻고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핵심역량인 흡수역량과 혁신의지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에 인색하여 흡수역량과 혁신의지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 경영과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이 흡수역량과 혁신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구비하고 외부전문교육 과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내부의 제도나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중소기업의 이러한 회사내부에 역량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지원과 육성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컨설팅 수진기업의 컨설팅사나 컨설턴트의 태도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중소기업컨설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나 컨설팅사는 수진기업의 컨설팅 효과의 극대화와 컨설팅결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컨설턴트 인성교육과 태도에 대한 역량강화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경영컨설팅사업 정책 담당 정부기관 담당자들은 컨설턴트풀 구성을 위한 컨설턴트 선발과정에서 지식이나 경험, 학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인성이나 공감능력 등을 판단 또는 측정제도를 보완하여 지식이나 경험 학력 등의 외형적인 요건 뿐 아니라 내면의 인성이 좋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진 그러한 컨설턴트를 확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발된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이러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다면 현

재의 컨설팅지원사업의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경영컨설팅을 수진한 중소기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으나 그 수가 부족하여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수를 늘려서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품질의 다양한 변수 중에서 전문성만을 사용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서비스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컨설팅성과로 실증분석이 가능한 경영성과 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컨설팅성과와 관련된 심리적 변수를 추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REFERENCES

- [1] *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 (2019). <http://sminfo.mss.go.kr>
- [2] M. J. Kim & S. I. Chang. (2016). A Study on the Effect of Business Consulting Performa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by Organizational Support.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35(2), 185–203.
- [3] J. H. Shin & H. L. Dong. (2019). A Study on The Effect of Management Consultant Competency on Management Performance of Cli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lient's Consulting Receptivit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2), 119–134.
- [4] J. S. Chae & S. S. Park.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Strategic Leadership and Innovation Performance of CEOs of SMEs : The Mediating Effect of Willing to Technological Innovation.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22(3), 1–24. DOI: 10.13106/ijidb.2019.vol10.no12.43
- [5] I. Jun & S. H. Oh. (2016). The Relationship of Top Management Team's Willingness to Innovat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R&D Intensity and the Moderating Role of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9(2), 213–235.
- [6] E. S. Jung & K. S. Chung. (2018).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city and Business Performance of SMEs: Focusing on Absorptive Capacity.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4(5), 489–504. DOI : 10.16980/jitc.14.5.201810.489
- [7]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2020). <http://www.law.go.kr>
- [8] B. Y. LEE. (2014).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in the Creative Economy*. Seoul: Bupmunsa.
- [9] A. P. Williams & S. Woodward. (1997). *The competitive consultant: a client-oriented approach for achieving superior performance*. Palgrave Macmillan.
- [10] M. Kubr. (2002). *Management consulting: A guide to the professi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11] U. J. Lee. (1999). *Consulting in Korea in the 21st Century*. Seoul: A new proposal.
- [12] J. B. Quin, J. J. Baruch & P. C. Paquette. (1987). Technology in services. *Journal of Scientific American*, 257(6), 50–58. DOI: 10.2307/24979579
- [13] A. Parasuraman, V. A. Zeithaml & L. L. Berry. (1985). A conceptual model of service qua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49(4), 41–50. DOI: 10.1177/002224298504900403
- [14] A. Parasuraman, V. A. Zeithaml & L. L. Berry. (1988). A Multiple-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Retailing*, 64(1), 12–40.
- [15] R. W. White.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5), 297–333. DOI: 10.1037/h0040934
- [16] M. Rynning. (1992). Successful consulting with small and medium-sized vs. large clients: meeting the needs of the client?.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11(1), 47–60. DOI: 10.1177/026624269201100104
- [17] S. R. Kang & Y. J. Moon. (2010).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on Absorptive Capacity and Innovation Performances. *Journal of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1(10), 3761–3771. DOI: 10.5762/KAIS.2010.11.10.3761
- [18] W. M. Cohen & D. A. Levinthal. (1990).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1), 28–52. DOI: 10.2307/2393553
- [19] J. Vega-Jurado, A. Gutierrez-Gracia & I. Fernandez-de-Lucio. (2008).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Firm's Absorptive Capacity: Beyond R&D. *R&D Management*, 38(4), 392–405. DOI: 10.1111/j.1467-9310.2008.00525.x
- [20] S. Myers & D. G. Marquis. (1969). Successful Industrial Innovations: A Study of Factors Underlying Innovation in Selected Firm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21] C. J. Chen. (2009).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cubator and Venture Capital and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2(1), 93–103.

- DOI: 10.1016/j.jbusres.2008.01.003
- [22] J. Tidd. (2017). Innovation management in context: environment, organization and performance. in *IEEE Engineering Management Review*, 45(2), 43–55.  
DOI: 10.1109/EMR.2017.7968101
- [23] S. A. Zahara & A. P. Nielsen. (2002). Sources of Capabilities, Integration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3(5), 377–398.  
DOI: 10.1002/smj.229
- [24] S. H. Lee & K. T. Park. (2012).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Management Innovation, Impact from Crisis, and Resilience Power. *Journal of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19(5), 177–191.
- [25] C. G. Lee, H. Y. Kim, I. H. Oh & C. S. Seo. (2013).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Management Consulting process for Organization Competence and Performance of SME and Venture Enterprise. *Journal of the Korea management engineers society*, 18(3), 63–81.
- [26] Y. S. Kim. (2012).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consulting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SM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2012(11), 1276–1281.
- [27] S. H. Lim & J. Y. Park. (2008). A study on the effect of internal service quality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Journal of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9(1), 363–386.
- [28] S. H. Song. (2005). A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Management Performance and Influence factors of knowledge Management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6(2), 1–22.
- [29] I. S. Won. (2007). Factors Influencing Firm Performances in Group-Based Incentive Programs. *Journ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14(4), 235–257.
- [30] R. S. Kaplan & D. P. Norton. (1996). The Balanced Scorecard 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Jan–Feb, 71–79.
- [31] U. Lichtenthaler. (2009). Absorptive Capacity, Environmental Turbulence, and the Complementarity of Organizational Learning Process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2(4), 822–846.  
DOI: 10.5465/AMJ.2009.43670902
- [32] G. Todorova & B. Durisin. (2007). Absorptive capacity: Valuing a reconceptu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2(3), 774–786.  
DOI: 10.5465/amr.2007.25275513
- [33] S. Y. Kim & K. O. Jung. (2017). A Study on the Antecedent Factors of Absorptive Capacity in SMEs: The Rol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eam Diversity, Self-transcendence Value, Slack Resource, and Environmental Uncertainty. *Journal of Regional industry review*, 40(1), 29–95.
- [34] S. A. Zahra & J. C. Hayton. (2008). The Effect of International Venturing on Firm Performance: The Moderating Influence of Absorptive Capacit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2), 195–220.  
DOI: 10.1016/j.jbusvent.2007.01.001
- [35] J. Yang. (2012). Innovation Capability and Corporate Grow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 China. *Journal of Engineering Technology Management*, 29(1), 34–46.  
DOI: 10.1016/j.jengtecman.2011.09.004
- [36] Y. H. Lee & J. C. Lee. (2015). Analysis on Effects of Consulting Processes to Absorptive Capacity.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and Decision Sciences*, 23(1), 161–162.
- [37] J. H. Shin & H. L. Dong. (2019). A Study on The Effect of Management Consultant Competency on Management Performance of Cli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lient`s Consulting Receptivit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2), 119–134.
- [38] S. B. Lee & C. G. Lee. (2018). A Study on Effects of Client and Consultant Characteristics on TRIZ Consulting Performanc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Innovativenes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3(2), 23–49.  
DOI : 10.23839/kabe.2018.33.2.23
- [39] E. S. Joung & K. S. Chung. (2018).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city and Business Performance of SMEs: Focusing on Absorptive Capacit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4(5), 489–504.
- [40] K. H. Lee. (2005). Analysis of the Process and Performance Factors of Organizational Innovation Activities—Focusing on the Diagnosi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hange Management Projects. *Journal of Policy Studies*, 2005, 135–155.
- [41] P. S. Kim, K. P. Kil & W. H. Kim. (2008). Performance of Public Body Reform and Future Reform Measures: Focusing on Corporate Governance and Operational System of Public Bodies. *Journal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0(2), 407–437.
- [42] K. H. Ko. (2009). The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Leadership of Local Chief Executive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Administrative Development. *Journal of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2009, 1–143.
- [43] M. Tubbs.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R&D and Company Performance. *Technology Management*, 50(6), 23–30.  
DOI: 10.1080/08956308.2007.11657470
- [44] Y. I. Yang & C. S. Kim. (2007). The Effects of Market Orientation on Product Innovation, Marketing Capability and Performance in the Korean Manufacturing Firm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2(2), 223–254.
- [45] D. H. Kim & J. Y. Choi. (2011). Analyzing Outcomes and Determinants of Product Innovation by Sectoral

Types i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4(3), 1615-1633.

- [46] B. K. Sohn, Y. B. Kim & K. N. Kang. (2016). Role of Customers on Innovation of Firm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9(4), 1397-1417.
- [47] B. H. Park, Y. S. Kim & D. W. Lee. (2005). Measuring Service Quality of Management Consult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33(3), 47-58.
- [48] G. Y. Song, J. W. Hong & Y. W. Yoo. (2014). Effects of Consulting Characteristics on SMEs Management Performance focusing on government supported consult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7), 205-215.  
DOI: 10.14400/jdc.2014.12.7.205
- [49] D. J. Shin & Y. Y. You. (2012). A Study on the Impact of Consultant's Competencies on Service Quality and Performance of Consult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4), 63-78.  
DOI: 10.14400/JDPM.2012.10.4.063
- [50] J. K. Kim & K. J. Seok. (2012). The Effects of Consulting Service Quality upon an Corporate Performance and Clients' Intention to Change Consultant. *Journal of Korea Tax Accounting Research*, 32, 133-159.
- [51] J. Allen & D. Davis. (1993). Assessing some Determinant effects of ethical consulting behavior: The case of Personal and Professional valu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6), 449-458.  
DOI: 10.1007/BF01666559
- [52] S. A. Zahara & G. George. (2002). Absorptive Capacity: A Review and Re-Conceptualization and Extens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2), 185-203.  
DOI: 10.5465/amr.2002.6587995
- [53] C. M. Koo & J. I. Choi. (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Absorptive Capacity on Firm's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review*, 37(3), 515-536.
- [54] G. S. Jo & C. M. Goo. (2008). An Empirical Study of Absorptive Capacity Factors to the Organiz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in Supply Chain Manag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Logistics and Trade*, 2008, 1-112.
- [55] S. C. Lee, S. M. Bae & B. S. Ko. (2008). An Empirical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of Determinants of Management Performance for Domestic Ventures.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13(4), 145-159.

박 준 현(Jun-Hyun Park)

[정회원]



- 2002년 2월 : 건국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공학사)
- 2019년 2월 :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석사)
- 2019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경영컨설팅, 기술사업화, 엑셀러레이팅, 창업멘토링

· E-Mail : foryou9893@nate.com

서 영 욱(Young-Wook Seo)

[정회원]



- 2000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09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경영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경영, IT컨설팅, 지식경영,

창의성, 소프트웨어품질

· E-Mail : ywseo@dju.kr